

## “공정성 확립해 남가주 한인 목사회 위상 높이겠다”

남가주 한인 목사회 53차 정기총회 이정현 목사 신임 회장 인준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3차 총회 참석자 기념촬영

남가주 한인 목사회는 지난 19일, 프린스턴 바이블대학교에서 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53대 회장으로 이정현 목사를 인준했다.

이정현 목사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대표로 역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 언론사 대표가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신임 회장 인사에서 이정현 목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다”며 “언론사 대표로는 최초로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회기 동안 남가주 목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목사는 이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난 52년 동안 수고하신 증경 회장님들의 헌신을 계승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각 단체 및 연합회와 상생하면서 남가주 목사회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또 임기 동안 성경세미나, 영성세미나, 사모세미나 등을 실시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공식인 수석부회장은 새롭게 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취임식 이전에 선출하기로 했으며, 회칙의 수석부회장 자격 요건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이정현 목사의 사회로 총무 강태광 목사가 기도했고, 남가주 한인 원로 목사회 증경회장인 이태환 목사가 “신앙의 3단계”(히 11:4-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주재임 목사의 봉헌 기도 후 박효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남가주 한인목사회는 지난 회기 활동으로 송년예배, 독립 선언 조찬 기도회, 삼일 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리틀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국가 기도의 날 연합 기도대회, 한국전쟁 69주년 예배, ACR 99 지지 운동 발족식, 52차 총회 및 공천위원회 공고 등을 보고했으며, 회계 보고는 이·취임식에서 받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 美 상원, '홍콩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시위대 힘 얻을 것”

미국 상원이 19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이

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을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위'를 기반으로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홍콩 인권법은 공화당 루비오

의원을 포함해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벤 카딘 상원의원이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던 홍콩 이공대

가 경찰에 의해 진압된 후, 일부 시위대만 탈출하고 4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스테판 로 홍콩 경무처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크리스 탕 차장을 앉히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위대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855 W. Olympic Blvd, #208,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Jesus Save  
Father's Table 미션  
아버지 밥상교회 주일예배  
2019년 11월 24일 (주일)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남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리우팅 번호 : 122043958  
여카운 번호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53년간 남가주 기독교계와 남가주 한인 사회를 섬겨온 남가주한인목사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남가주한인목사회를 도우신 성도님들과 교민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회장 이정현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 53대 임원 일동

**일시** : 2019년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주 평안 교회(임승진 담임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문의** : T.(213)272-6031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엘리야김 목사



**이임 회장**  
52대 김관진 목사



**취임 회장**  
53대 이정현 목사

# “복음의 핵심 사중복음, 초교파적으로 연구·전파할 것!”

## 류종길 목사 원장으로 미주 사중복음연구소 개소

미주사중복음연구소(소장 류종길 목사)가 미주 지역 한인교회에 성경 운동과 사중복음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주사중복음연구소는 지난 17일, 임마누엘헬로스교회(담임 안충기 목사)에서 개소 감사예배를 드리고 미주 한인 교회와 함께 초교파적으로 사중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소장 류종길 목사는 “성령이 어느 교단의 독점이 아니듯, 사중복음 역시 성경교가 독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사중복음을 깊이 나누고 싶다”며 “사중복음은 성경의 본질로 철저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성령 세례를 통해 열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성경적 선포”라고 소개했다.

LA 인근 라하브라시에 자리한 미주사중복음연구소(1201 S. Beach Blvd #215 La Habra CA)는 앞으로 매주 세미나를 개최해 사중복음을 연구하고, 사중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전파를 위한 자료 정리와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성경 66권을 사중복음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작업과 함께 선교



임마누엘헬로스교회에서 진행된 미주 사중복음연구소 개소 감사예배

지에서 전도된 학생들에게 사중복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장 최인식 교수가 “사중복음 해석학의 역사적 성서적 교의적 기초 정립을 위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사중복음 특강을 전했다.

최인식 교수는 “사중복음은 어떤 교파에 속해있는 복음이 아니라 개신교 전반에 걸쳐 예수를 믿고 성경

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학의 기초”라며 “사중복음은 성경교단이 시작했지만 성경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초교파적으로 타교단 신학자 및 목회자와 함께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사중복음은 존 웨슬리 안에서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신앙체현뿐만 아니라, 사중복음 신

학의 사유가 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웨슬리의 신학이 철저히 성서적이며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 웨슬리는 복음주의 신앙공동체들이 사중복음 신앙과 신학을 깊이 있게 정립하고, 사중복음을 폭넓게 실천해 나가는데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사중복음은 성경에 기초한 정당한 신학적 해석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종말론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사중복음의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초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중복음이 뿌리내리고 있는 원천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사중복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 성령은 성부의 말씀과 성자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정리했다.

한편 류종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연합선교교회 이상복 목사가 기도하고 유니온교회 원로 이정근 목사가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미성대학교 이사장 조종곤 목사가 축사하고, 전 서울신대 교수 허경삼 목사가 축도했다.

김동욱 기자

# 신앙과 실력 갖춘 크리스천 1.5세, 2세 이중언어 교사 모집

## 본국 최대 대안학교 글로벌 선진학교 남가주 교계 지도자 및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본국 내 최대 규모의 국제화 인가 대안학교인 글로벌 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는 지난 20일, LA 한인타운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와 언론사들을 초청해, 학교 소개와 함께 미주지역 1.5세 2세 기독교 교사 모집, 저개발 박해지역 국가 우수학생 장학금 후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글로벌 선진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맞춤형 진학지도,

창의융합 STEAM 교육, 글로벌 프로젝트(Glocal Project) 등 다양한 학습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이사장은 이어 “졸업생 40%가 북미대학교로 진학하고 20%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대학교로 20%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대학교로, 20%는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다”며 “특히 졸업생 가운데 40% 이상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세계 100위권 명문대학으로 진학한다”라고 덧붙였다.

2003년 음성캠퍼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선진학교는 기숙형 중고등학교로 2011년 문경캠퍼스에 이어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를 개교해 2020학년도 기준 1천1백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 세종캠퍼스(유·초등부)는 3개의 교육센터에 600여명의 초등학생이 교육받게 된다.

남 이사장은 “글로벌 선진학교는 다수의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지도할 크리스천 이중언어 또는 영어 원어민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뜻을 품은 남가주 지역 기독교 교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글로벌 선진학교가 주최한 남가주 교계 지도자 및 언론인 초청 간담회

지원 자격은 이공계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 영어 등 어문학, 인문학 전공자, 경제, 경영, 사회, 언론, 재무, 여사, 인류학 전공자, 성경, 신학, 기독교 교육 전공자로 교육 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한인 1.5세 및 2세대.

글로벌 선진학교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Joshua Kang(학교장) 717-830-9356 / joshua@gemgem.org 또는 Joon Nam(HR 담당) 714-710-2674 / joon@gemgem.org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1-20 자격신청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

초 대 합 니 다

**2019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찬양제**

Dec. 8st(Sun), 2019 / 5:00 PM  
 나성한미교회 본당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el. 626-444-0058 (Office)

지극히높은곳에서는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하나님이 기뻐하신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성탄의 기쁨을 동부지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회장: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 부회장: 최준우 목사(좋은비전교회) 총무/문의: 박진석 목사(브리지교회, 623.339.6177)

# “예배 찬양, 나르시시즘적 치유 회복 보단 하나님 찬양이 본질이죠”

새소망장로교회  
이소명 목사  
‘더 콜링 워십’ 출시

새소망장로교회 이소명 목사가 최근 “고대-미래 예배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앨범, 더 콜링 워십을 출시했다.

찬양사역자들에게 바른 예배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자 기획된 앨범은 바른 예배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고대 예배 요소를 현대 예배에 재현하고 더 나아가 미래적 요소도 입을 시도했으며, 오늘날 예배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의 고백으로 회복되는데 중점을 뒀다.

이소명 목사는 “고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찬송의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다”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음반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가 작사 작곡한 “기억과 예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올바른 의미를 설명한다.

그는 “성찬을 포함해 우리의 전체 예배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고 기대하는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다”며 기억과 예상으로의 예배학적 의미를 해설했다.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에

서 “실용 교회 음악 교육 철학” 강의도 진행하는 이소명 목사는 “찬양 사역자는 예배의 선봉장으로서 음악적 재능을 넘어 올바른 예배 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예배에서 찬양 사역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 앞으로의 찬양 사역은 그저 음악적 재능이 있는 리더나 부목사가 담당했던 자리를 넘어 예배 전반을 컨설팅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예배 찬양이 나르시시즘적인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평안 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찬양 사역자들에게 예배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 콜링 워십 앨범은 예배 신학적 접근뿐 아니라 음악 양식에 있어서도 전통 악기들과 현대 악기를 융합한 노력이 돋보인다.

앨범에 수록된 다수가 오케스트라와 밴드의 연주 위에 기독교 본연의 예배에 중요시되었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녹음한 4부 합창곡으로 이뤄졌고, 피아노 가이드에 드럼, 베이스, 스트링과 오케스트라 브라스, 팀파니와 일렉 기타 등 전통과 현대 음악의 조화가 연주곡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정규 신학과 함께 재즈 피아노라는 현대 음악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이소명 목사는 현대적인 음악 기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예배를 준비하는 미래 찬양 예배



최근 ‘더 콜링 워십’을 출시한 새소망장로교회 이소명 목사

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지역 교회에 보급하고 예배 부흥을 위한 찬양 사역자 교육, 예배 신학 강의, 밴드 클리닉, 찬양 사역 등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섬길 예정이다.

이 목사는 “실용교회음악교육철학을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었다”며 “앞으로의 삶은 제가 배운 예배와 교회음악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소명 목사의 찬양 및 예배 사역 문의는 전화 714-726-6572 이메일 callinglee2@gmail.com 블로그 blog.naver.com/woolal84로 할 수 있다.

한편 이소명 목사는 이번 앨범에서 프로듀싱과 믹싱, 마스터링을 비롯해 직접 기타와 피아노, 베이스와 일렉 기타를 연주했다. 심지어 오케스트라도 맥북을 이용한 소

프트웨어로 직접 제작하고 베이스와 테너로 노래까지 하는 등 음악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여기에 김수영 사모와 동생 이상혁 씨도 앨범에 싱어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소명 목사는 한신대학교, 풀러신학교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원대학교와 호프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재즈 피아노를 공부했다. 김동욱 기자

# 사우스베이 목사회 2020년 신임회장으로 장경일 목사 선출



사우스베이 목사회 2019년 정기총회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지난 17일,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장경일 목사(원패밀리교회)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장경일 목사는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2020년 한 해, 더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용 목사가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종용 목사는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면서 “2019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자”고 전했다. 한편 사우스베이목사회는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전 7시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이인규 기자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째수에서도 성경을 읽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dms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복음통일: G.B.M.W(에프.에프.에프) 기금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예금계정수준을 보내드립니다.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나성제일교회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사명으로 삼고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선교에 비전을 두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차성구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세워 이전 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하나되어 나가려 합니다. 담임목사 취임 예배에 꼭 오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성구 담임목사

- 일 시 : 2019년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 나성제일교회 (213 S. Hov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연락처 : T.(213)388-7101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에서 매주일 오후 5시에 설교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4

### “실크 웨이브 미션(SWM)의 국제 이사회가 열린다(2)”

실크 웨이브 미션의 한국과 미국의 이사들이 국제 이사회 장소를 이집트로 결정한 때가 2년 전이다.

지난 십 년간 연합 중보기도운동의 장소를 터키로 하여 기도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IS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넘게 시리아를 탈출하여 이웃나라들과 유럽 특히 터키 등으로 들어왔다. 터키 시리아 국경 등지로 선교 사역을 매년 가던 필자는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을 보았고, 바로 하루 전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가족들을 잃은 채 부상당하여 터키 국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보며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눈에 선하다.

이렇게 터키로 들어온 난민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했고, 그들의 굶주림과 생존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때 실크 웨이브 미션은 연합 중보기도운동의 리더십을 터키 현지인 교회들에게 건네주고,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Bible & Bread 비상 캠페인”을 시작했다.

실크 웨이브 미션의 이사 교회와 후원교회들을 중심으로 전국 수천 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도시 가운데 난민으로 들어와서 유엔 난민 캠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전덕꾸러기 신세가 된 도시 난민들을 찾아 미려하나마 구제품과 복음을 같이 전하며 그들의 고난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지내면서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난민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터키 안에서 터키 현지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율은 매우 낮은 반면 터키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복음 전파율은 매우 높아진 것이다. 시리아 난민 교회들이 터키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인 교회들도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크 웨이브 미션과 협력하는 현지 한인 장기 선교사들과 파트너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을 후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선교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선교(Misio Dei)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실크 웨이브 미션의 이사 교회와 후원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교회마다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을 형편에 맞게 한 가정부터 여러 가정까지 교회들이 수용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지원 체제를 갖추었다.

각지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추천한 터키 곳곳에 신앙심 있고 리더십이 있는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을 대표인 김진영 선교사가 일일이 면담하여 확실한 개척 의지가 있는 교회 개척 지원자들인 약 40여 가정의 후원을 시작했다.

2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장기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현지 교회 개척자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운영이사 연합 이사회를 선교 현지에 가서 교회 개척자들의 교회 현장도 방문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할 겸 국제 이사회를 2년 후 이집트에서 하자고 결정하였다. 바로 그 결실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모든 이사들이 각기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고, 또한 대부분 다른 선교단체의 리더십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명에 이르는 이사들이 같은 시간을 내어 약 2주간 선교지 사역을 참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몇 분의 이사들은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대부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한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라 서로 놀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시간을 보냈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이집트에서만 6가정의 교회 개척자를 추가로 더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터키 현지인 교회들의 요청으로 터키 및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한 영적 돌과 사역인 “연합 중보기도운동”을 해야 할 시기가 다시 한번 왔음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깨달아 그 계획을 시작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6) 낙관

### “인생을 낙관하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가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 연거푸 세 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꿈이 다 상상치 않아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찼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요.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선비는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여관 주인이 이유를 묻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선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선비가 꿈 이야기를 하자, 여관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혀 다른 해몽을 합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며”, “몹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 같소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꼭 봐야 하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 젊은 선비는 용기를 얻어 과거시험을 보았는데,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선비가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 과거를 볼 필요도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니 너무 좋은 길몽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해석하며 삽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사람

입니다.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라는 책에 인디언 어느 부족의 기우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기우제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디언들은 비는 반드시 온다는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마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년 간격으로 3차례 낙관성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낙관성은 일상의 삶에서 직면하는 사건과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입니다. 직면한 사건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낙관성입니다.

연구의 관심은 긍정과 부정의 정서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낙관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행복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낙관성과 행복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라며 “이 연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

습니다. 필자는 행복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낙관성 증진 훈련 프로그램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낙관성 증진은 행복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관적 시각을 갖는 긍정적 태도의 유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면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체계를 북돋우고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낙관적 시각을 갖는 긍정적 태도의 유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면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체계를 북돋우고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큰 유익과 행복감 증진에 큰 유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한 의사 웬디 슐레셀 하르팜은 오래 전 인턴으로 일하던 중 자신이 암 환자임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 15년간 8차례나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그녀는 재발한 암을 행복과 희망을 품는 긍정적 정서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녀는 암과 싸우면서 행복정서와 긍정적 희망을 품기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규칙들을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녀가 고수한 규칙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 어울릴 것, 감사 일기를 매일 쓸 것, 누군가를 위해 나눔의 삶을 살 것, 재미있고 기분 좋은 영화들을 볼 것 등입니다. 그녀는 결국 암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낙관하면서 암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긍정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세요. 긍정의 마음이 행복을 품는 마음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 정기 총회 공고

일시: 2020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프린스턴 바이블 대학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주재임 목사 / 총무 한수지 목사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2020년대를 이끌어갈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를 등록받습니다

입후보 제출서류 마감

입후보자 제출서류  
2019년 12월 31일(화) 오후 5시까지

-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교단 추천서 4.목사 안수증 5.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공탁금(Cashiers Check 회장 \$1,000/수석부회장 \$500)

공천위원: 주재임, 윤에스더, 송정순, 조은혜 목사    공천위원장: 안선신 목사 213-905-0646    서기 김영일 목사 323-979-1600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주재임 목사    총무: 한수지 목사

# 어린이 사역, 필리핀 복음화 위한 소중한 씨앗

## [사역 소개] 필리핀 김형석 선교사

2002년부터 필리핀에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형석 선교사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제네럴 티니 오에서 동지 고아원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의 집 짓기를 통한 '예수마을 공동체'를 일구고 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신학을 시작한 후 한국교회에 교회학교 전문인 사역자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섬기고 싶다'고 기도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의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어린이 사역에 뛰어들던 건 2002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부터다.

당시 필리핀에는 약 1천5백 명이상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맡게는 40개에서 50개까지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교회학교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다. 김형석 선교사는 이점에 착안해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거나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개척된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로 사역 방향을 정했다.

신학교 시절, 어린이 사역에 유독 관심이 많아 배워두었던 인형극, 레크레이션 지도자, 노래와 율동 세미나, 풍선 아트 등은 필리핀 선교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인형 몇 개만 들고나가도 300명에서 900여 명의 아이들이 몰릴 만큼 필리핀 아이들은 열광했다.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한 교회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훈련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16개 현지인 교회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 동지 고아원의 시작 "매일 성탄절이면 좋겠어요"

그가 교회학교 사역과 더불어 진행하는 동지 고아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12월, 미국 선교사로부터 인형극 공연 요청으로 찾은 교회에는 50여 명의 집 없는 아이들이 성탄 축하잔치에 초청받아, 게임과 찬양, 성경공부, 재미있는 인형극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집이 없던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매일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김 선교사의 마음을 울렸다.

선교사들은 "내년 성탄절에 다시 초청하겠다"는 말로 위로했지만, 아이들은 "매일 성탄절이면 좋겠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날 집



필리핀에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김형석 선교사

으로 돌아온 김형석 선교사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고 이곳 필리핀까지 왔지만 집도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를 외면하고 돌아온 제 모습은 누가봐도 10장의 강도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길에서 헤매는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10년의 과정을 거쳐 2012년 동지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고아원 이름은 어린 새가 동지에서 어미 새의 돌봄 속에 자라다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 아이들이 기도와 사랑의 양식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날아오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었다.

### 가장 어려웠던 순간, 아내와 사별



어린이 초청 전도를 위한 마을 행진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원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순조롭게 건축을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개원을 준비할 때 즈음 김 선교사의 아내가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준비해온 고아원 건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에 충격은 더했다. 아내의 빈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컸지만 고아원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렇게 희생과 은혜의 터 위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고아원은 개원할 수 있었다.

### 우기는 기회, 사역의 발전 가져와

고아원 사역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부모 없이 거칠고 열악한 생활을 이어오던 아이들은 싸움이 잦았고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다.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학업도 낙제 수준이 대부분이었

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기도가 없이는 견디기 어려웠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들은 식사 시간외에도 늘 배가 고프었다. 특히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간식을 원했던 아이들은 냉장고를 텅텅 비우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냉장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냉장고를 잠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 선교사는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를 통해 고구마 종순을 한 박스 기증받아 고아원 주변 밭에 심었다. 고구마는 단순히 학생들의 간식과 배부름을 넘어 노동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어려움의 시간들도 이제는 추억처럼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변화됐다. 매일 저녁 8시에 드리는 예배시간,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망도 생겼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오늘 한 끼를 찾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

제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 경찰관, 디자이너를 꿈꾸고 선교사가 돼, 복음 전파의 소망을 기도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필리핀 번두리를 방황하던 고아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필리핀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됐다.

### "사랑의 집짓기" 로 예수 마을 공동체 꿈꿔

내 집 마련의 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정을 이루면 가지는 꿈 가운데 하나다. 하루하루 막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필리핀 빈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은 간절한 소원이다. 김형석 선교사는 이들을 위해 교인 가정을 통해 교회 주변 4만 스퀘어피트의 땅을 기증받아 40채의 집을 지어 예수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300 스퀘어피트의 아담한 집은 시멘트와 벽돌, 나무, 철근 모래, 지붕 재료 등 약 1천 달러의 예산이 필요했고, 포항 늘사랑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 교회와 성도 가정들의 후원으로 꿈의 집이 완성됐다. 집이 필요한 40 가정을 선별하되 20가구는 교인 가정에서 나머지 20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에게 전달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내년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최종호 장로가 기증한 1만 8백 스퀘어피트 땅에 30가구를 지어 지역 주민을 섬기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기도하고 있다.

김형석 선교사는 "동지 고아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동지 고아원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길 바란다"고 기도제목을 전했다.

필리핀 동지 고아원을 후원하길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주님의 빛 교회 주혁로 목사 562) 896-9191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전도 부흥회에 몰려든 필리핀 아이들

# 축수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7:1)

기쁜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joyfulccc.office@gmail.com 818-662-0400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 옛적 길 곧 선한 길(1)

예레미야 6:9-21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예레미야 6:9-21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11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납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20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은 여짚이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어 살지 못하는 것은 이성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함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창조이후 지금까지 엮어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

종했던 백성은 반드시 성공을 결실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했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로 점철해 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큰 환란의 형벌을 예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다보면 포도 알갱이와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떨어진 것들은 포도 수확을 다 마친 후 옆드려 광주리에 주워 모아 말갱게 거두어들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불행의 예고인 것입니다.

바벨론 대군이 먼 곳에서부터 쳐들어 올 때 마치 농부가 포도를 거두는 것처럼 이삭을 먼저 열매로 거두고 땅에 떨어진 것은 광주리에 따로 주워 모으는 것처럼 한 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의 침략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죽어서 멸망했다 할지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 포도 이삭을 광주리에 걷어가듯 두 번째 침략을 인하여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도록 없애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의“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을 불태워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시대적 변화의 모습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란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 인연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관계는 부득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려고 애쓰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욕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소멸되고 유기된 백성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는 상황이 됩니

다.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 즉”하셨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환영하고 알뜰히 품어 보살피 주시기 위하여 팔을 벌려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매를 때리시기 위해 손을 펴시는 경우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갖게 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미워 때리는 것이 아닌 그 장래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때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인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납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납’이라는 말은 좋든 나쁘든 무조건 휩쓸어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며 그저 거두어 챙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세지향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기적인 정욕에 사로

잡혀 살았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와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할 뿐 아니라 살리기 위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마저도 욕을 듣는 것처럼 싫어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거두고 챙기는 일에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고 복음화 되어지길 힘쓰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지만 복음을 수없이 전해 주었지만 복음화로 기대 걸거나 그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잘못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3-4에 보면“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했는데 이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하셨고 이사야 1:19-20에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했습니다.(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제103차 D3 전도중심제자훈련 목회자세미나

강사 : 안창천 목사, 이카림 원장



주강사 안창천 목사

- 더처치 & D3 평신도연구소 대표 (www.d3.or.kr)
- 총신대 교회성장학 박사(Th.D)
- '목회와 신학에서 유기성 목사, 김인중 목사, 오정현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교회 제자훈련 명강사로 선정됨 (2011년 7월호)
- '성공의 적, 교만' 외 30 여권 저술
- 현재 해외 102차, 국내 150차 제자훈련세미나 인도, 국내외 45차 D3 행복축제 인도

단기간에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 삼는 말씀 사역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D3 전도중심제자훈련이 꼭 필요하신 분

- 단기간에 평신도를 복음전도자로 세우고 싶으신 분
- 단기간에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으신 분.
- 전도는 되지만 정착, 양육, 제자훈련이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
- 단기간에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고 싶으신 분.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화) : 오전 9시 30분 ~ 오후 8시  
**장 소** :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회 비** : \$70 (식사, 훈련교재 2권, 소책자 포함)  
**연락처** : 714-461-6412 조준민 목사

\*특전 : 3분 복음메시지를 암송하고 참석하는 분은 안창천 목사의 저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음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 4. 자기 소개서
- 5. 최근 설교 CD
- 6. 추천서

### ■ 제출 방법

-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요한 계시록,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제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가교회에서 진행된 요한계시록 특강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주와 한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예배와 성경 자료를 공유하는 내 교회 남상국 목사가 지난 14일,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추수감사절 요한 계시록 특강을 열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한 남상국 목사는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라며 “요한 계시록에 이어 아가서와 다니엘 강해 특강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상국 목사는 성경의 연대기와 사건, 배경 등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낸 ‘낮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성경 공부’를 개발해, 요한 계시록과 아가서 성경공부를 출판한 바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함께 은혜받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남상국 목사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를 졸업한 후 도미, 64세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GMU)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으며, 2014년 67세의 나이로 애너하임에 오픈바이블교회를 개척해 교계에 큰 선교적 도전을 주기도 했다. OC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남상국 목사는 현재 남가주 연목회(연세동문 목회자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미주 한인 가정 폭력,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가까이 있어요”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인 여성사역자 수련회

##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 위한 한인 여성사역자 수련회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남가주 한인 기독교 여성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1박 2일 교육 수련회를 홀리스피릿 리트릿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LA와 옐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독교 여성 사역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정 폭력의 정의와 종류, 성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폭력 실태에 공감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했다.

참석한 한인 여성사역자들은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인가정상담소와 협력해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오기 전에 종교계 관계자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한인가정상담소는 8년전부터 한인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들을 개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 종교계와 협력해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자들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Y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 (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 사랑의 종소리 울려 퍼진다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는 지난 15일, 한인타운에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하고 성탄절 이브인 24일까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은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한남체인, 김스 전기, 갤러리아 마켓 두 곳과 한국 마켓 등 총 5곳에 설치됐으며 모금 목표액은 5만 달러다.

이주철 사관은 “구세군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종을 울리며 모금행사에 나섰다”며 “연말 시즌에 마음과 몸이 더욱 추울 수 있는 이들에게 남가주 한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자선냄비 봉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성금을 보내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세군 나성교회 213 - 480-0714, 또는 이주철 사관 408-480-3171에게 연락할 수 있다.

# 특집 |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구약 성경,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이다.

구약 성경의 맥추절(the Feast of Harvest)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다.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wheat)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다(출 23:16, 34:22).

그러나 11월 셋째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Pilgrims)의 '감사'에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였다.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한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지 금 달력)으로 8월 15일) 스피드웰(Speedwell)과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 물이 새 다시 귀항했다.



한 교회의 추수감사 장식.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 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대서양) 중부 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으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메사추세츠 케이프 코드(Cape Cod)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63일간 3,400마일(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닿은 내륙인 것이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일을 배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들은 후일 이렇게 고

백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해(1620-1621) 겨울, 2-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이러한 가운데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땀을 마려내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올여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시 126:6)". 청교도들은 암동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살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첫 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둘째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고, 셋째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싸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pumpkin pie)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됐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됐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찬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확임하며, 이인3세를 확임하며, 선교경영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커릴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출입역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종보기도회(목)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20-7240 Email: la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금요일예배(분당) 오전 11:00  
리셋예배(분당) 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영양부/유아/어동부예 5:20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신. 초. 초 정성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취부/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오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결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김경별**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가)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주동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민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주동부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P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00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요일 8:00 588 Alhambra Ave. Monterey Park, CA 91755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요일 8:00  
 T. (818) 363-5887 Fax: (818) 337-59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지금까지 잃어버린 2세 너무 많아...  
 연합으로 귀한 신앙의 유산 이어가고파**  
**[인터뷰] 2세 평신도 중심 신앙회복운동 '에베레스트'  
 디렉터 조나단 최, 김동인 목사**



왼쪽부터 김동인 목사(슈가로프한인교회), 다니엘 김 목사(염광장로교회), 존 윤 목사(그레이스한인교회).

에틀랜타 지역 영어권 청장년 모임인 에베레스트(디렉터 조나단 최) 컨퍼런스가 지난 9일(토), 'True Identity'를 주제로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에서 열렸다.

2016년 5월,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 JGM) 집회를 계기로 모이게 된 2세를 중심으로 시작된 에베레스트는 영어권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한 신앙회복운동이다.

에베레스트 사역이 특별한 점은 이민 교회와 델레야 뿔 수 없는 영어권 사역의 부침을 겪어온 2세들이 스스로 나서, 1세나 영어권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인 교회만의 아름다운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잃어버린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포맷을 취하는 유연성이다.

에베레스트 사역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조나단 최 형제와 김동인 목사를 만나 인터뷰 했다.

왜 우리들은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흑인 교회하면 '찬양과 워십', 백인 교회하면 '설교'가 강력하다는 이미지가 있듯이 한인 교회하면 '커뮤니티와 기도'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인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모임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2세들이 이런 귀한 신앙적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이어갈 길 소망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김: 일단은 일일 부흥회 혹은 컨퍼런스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로 직접 초대하면 부담스러워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있거나 다녀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집회 뿐 아니라 '아티스트 엑시비트' '콘서트' 처럼 문화적인 것, '농구대회'처럼 스포츠 관련된 것도 해보려고 해요. 세계와 교회의 중간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 3년간 주로 찬양집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150명에서 250명 정도의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이 모였는데 앞으로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레스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듣고 싶다.**

김동인 목사(이하 김): 에틀랜타 지역에서는 영어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2세들을 모으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2세 위주의 연합집회나 부흥회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주도하게 되면, 일단 본인이 맡으신 교회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셔야 하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연합 사역이 흐지부지 되곤 했습니다.

**-필요는 절실히 느끼지만 어려움을 겪던 중에, 조나단 최 형제가 평신도 주도의 사역을 하되, 영어권 목사님들을 앞에 세우고 한어권 목사님들의 협력과 가이드를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김: 맞아요. '연합'을 이야기 하려면 완전한 신뢰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베레스트의 레이피플(평신도 사역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봉사자 모임도 계속 하면서 사역을 평가하고 방향을 논의해갑니다. 보드멤버와 디렉터는 다 한인 교회와 관계가 있는 목회자들로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돕고 동역합니다.

이 친구가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목사의 자녀로 교회에서 나오 자라면서 여러 영어권 목사님을 섬겼고, 찬양팀 리더로 섬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서 혹은 그 이전부터 서서히 신앙을 잃고, 어른이 될 수록 더해지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해요. 에베레스트는 그래서 직접 교회로 이끌진 목회자라든 한 발자국, 혹은 반 발자국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다리역할을 자처합니다.

이 안에 교단이나 교회, 직책도 없습니다. 제 말은,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지만 직책에 상관 없이 한인 교회와 함께 2세들을 품고자 한다는 큰 부르심 가운데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든, 영어권 사역이 있던 없던 이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하고 싶으신 곳에서 초대해 주신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 아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 2세사역부로 에베레스트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최 형제(이하 최): 사실 제 주변에 많은 2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더라도 미국교회를 가요. 그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뭔가 놓치는 기분이다',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다'는 거예요. 결국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받으면 서로 한인 교회만의 귀한 신앙적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에베레스트말고도 여러 연합모임이 있습니다. 영어권 목회자들 모임도 있고, 다른 종류의 모임도 있는데 이분들과도 수련회도 같이 하고, 2세 사역의 방향도 고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2세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잘 해나가면 같이 힘을 모아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린 2세들을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전 두 가지를 짚어요. '커뮤니티' 그리고 '기도'. 커뮤니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 혹은 정(情)입니다. 한인 교회에서는 누구나 만나면 '밥 먹었어?'하고 물어봐요(웃음).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깊은 관계를 나눕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아버지 따라 새벽기도를 다녔지만 거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김동인 목사와 조나단 최 형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2세들이 한인 교회를 떠났다. 앞으로 20년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귀한 신앙적 유산을 이어갈 2세를 잃게될 것이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입을 모았다.

아틀랜타=앤더슨 김 기자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성추문 논란 증경회장 제명 결의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전직 회장들이 소속되는 증경회장단이 15일 정오 베이스اید 한 중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근 뉴욕에서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목사를 증경회장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뉴욕교협 전직 회장이 증경회장 명단에서 제명된 것은 45년 뉴욕교협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는 통상 12월에 개최되지만 뉴욕교협 회장을 역임했던 이종명 목사와 관련한 사건이 뉴욕 동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증경회장단 단장인 송병기 목사는 이날 "제 임기 중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단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증경회장단은 이종명 목사의 회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진중한 토론을 이어갔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증경회장단 내에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과 자진사퇴를 권고하자는 의견, 아직 기소되기 전이기에 죄를 쉽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최소

한 성추문 사건임은 사실상 확인된 만큼 제명 등의 처리가 바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고 한 시간 가량의 긴 토론을 이어갔다.

이에 증경회장단은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과 '5인 조사위 구성 후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혀 투표를 진행했고, 10대 6으로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증경회장들은 회의를 마치고 침통한 심정으로 다가 이 회개의 통성기도를 했다.

당초 증경회장단은 이 자리에 이종명 목사를 불러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이종명 목사는 같은 날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첫 하러링 일정이 잡혀 있어 참석이 불가능했다.

현재 이종명 목사는 3급 강간과 강제 신체접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 중 증경회장단 한 관계자는 이종명 목사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제성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 英 정부, 이란에 “기독교인 종교자유 보장하라” 촉구



이란 의회 내부의 모습. ©Wikimedia Commons

영국 정부가 이란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소수 신앙인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제34차 인권 정례 검토에서 유엔 주재 영국 미리암 쉬어만(Miriam Sheamna) 대변인은 선언문을 통해 "이란이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이란 시민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명확하지 않은 구금과 잘못된 처우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쉬어만 대변인은 "이란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거나 고문을 당해선 안된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도 그들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지 않은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선언문에서 "소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과 바하이교인들을 상대로 한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재공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 지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불분명한 체포 및 구금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

강혜진 기자

# 한국, 11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서 빠져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빠지게 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 결의안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외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192개 회원국이 모두 모이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김신의 기자

## 사우스 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갈라너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TOI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중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15: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오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정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의 열매를 실리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복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복음 베풀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목요일예배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찬양예배: 오후 7시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church.org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람창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목)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중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김인철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임경남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강제복송 선원 구출 공동서한 유엔 제출

## 국내외 28개 인권단체 “국제사회에 알리야”



지난 12일 통일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구탄집회 현장.

### 고문,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처형 우려 정부, 합리적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준수

28개 국내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한국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인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나아가 자의적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서한(Joint Letter)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 선원 2인 강제복송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규탄 성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강제복송된 선원에 대해 16일 “사람은 16명이나 죽고 왔는데,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어야 하니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려는 사람들(성통만사)가 유엔의 고문, 처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14일에는 물망초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정통법률가) 공동명의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12일과 14일에 비판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

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엔 참여한 국내외 단체들의 수는 28개 단체이며, 외국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들은 유엔의 여러 특별 보고관들(mandate holders)과 인권 담당관들에게 공동서한을 제출해 다시 한 번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EU 의회와 한반도 관계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에게 발송한다.

공동서한은 이들에게 북한 선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일 에 동참을 요청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생명과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 조사와 함께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여 이러한 행동의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복송된 선원들의 혐의 사실 유무는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최악의 인권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원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바다로 다시 나온 것은, 충분히 해명할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시금 북한선원 강제복송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세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 터키 대통령 “시리아 교회들 재건될 것”

##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타이프 레제프 에르도간(Tayyip Rece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의 교회들이 곧 재건될 예정이며,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시리아 북부를 공습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데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처소와 교회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인 소수자들, 아랍인, 가톨릭교인, 갈데아교인, 야지디족 등 우리의 국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리아 국경에 남아있는 이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가 재건되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기독교인들이 가

능한 모든 면에서 의료적·인도주의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을 철수하면서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최근에는 아르메니아 가톨릭 사제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데이르예즈르에 있는 교회에 방문했다가 교회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 발발 후, IS는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터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부는 여전히 종교자유에 대한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수 차례 아무런 이유없이 추방시켰으며, 터키의 기독교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더 늘어난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작년 미 행정부는 미국인 앤드류 브린슨 선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었다.

강혜진 기자

# 전광훈 목사 “유시민, 강제복송 선원 데려오라... 숙박비 감당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18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과의 유튜브 채널 대담에서 최근 강제복송된 북한 선원 2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작가가 한 강연에서 “(강제복송된 선원 2인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간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유시민 작가가 북한에서 그 2인을 데려와 달라. 숙박비는 얼마든지 감당하겠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도 “아직도 두 청년이 살아있다면, 데려와 달라. 제가 한 명분 숙박을 감당할테니, 목사님도 한 분 감당해 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본지에도 “이 사건은 다 드러난 대로 선원 2인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데도, 사형수처럼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가린 채 판문점에서 넘겨졌다”며 “국제인권단체들 차원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문제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전광훈 목사.

## 유시민 “집에 방 내주라” 발언 반박 사형수처럼 안대 가린 채 넘기다니 선원 돌려달라, 숙박비 감당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침묵하는 한국교회는 비겁한 것”이라며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일이고, 북한을 향해 선원 2인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동해 북방한계

선(NLL) 인근에서 붙잡힌 북한 선원 2인에 대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했다”며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강제복송’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청년과 학부모들이 한 집회에서 ‘성적지향 삭제하라’, ‘비윤리기관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적극 환영”

8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가 안상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 제정 당시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

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행위를 하는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삭제 없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

김신의 기자

# “탈북민 추방, 명백한 헌법 위반... 납득할 수 없어”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

##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tbs eFM과 인터뷰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투(Greg Scarlatou) 사무총장은 18일 tbs eFM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 3조에 대한 민

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항상 탈북민들을 보호해왔다. 한국 정부가 3일 만에 두 사람이 16명을 살

인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이 3일 간 정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탈북민을 복송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라면서 “이들 선원들은 분명히 고문과 사형 등 두려운 삶의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반대했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평화적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과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로 조선족 살인자도 변호해 준 인물이다. 그런데 탈북민들을 살인자란 이유로 복송하는 이같은 이중적인 잣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슈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인권) 이슈를 나중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지금 다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서울광장 대형트리 점등 “예수님, 큰 기쁜 소식” ©CTS 제공 지난 16일 점등된 성탄트리는 전체 높이 20미터, 밑 지름 8미터로,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념해 LED조명을 통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지털트리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국가의 언어로 표현된 크리스마스인사가 표현되어 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반가움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辯護**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장이로움을 갖추는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말 한마디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추수감사절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 (진리의길) 앎,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2020년 11월 1일

등록상담전화 212-261-260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 감사로 반응하는 지혜

인생은 사건과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인생은 자극과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극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개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극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언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0명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자극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용량(容量)을 넓혀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용량을 넓혀

랍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탁월합니다. 정서적 성숙이란 감정의 용량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면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일단 감사로 반응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셋째, 관계의 용량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갖는 중에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대상을 향한 기대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의 배후에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의 용량이 작으면 쉽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민 13:32).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민 13:33).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도록 원망을 전염시켰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민 14:7-8). 하나님이 함께하십시오로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민 14:9).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반응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서 원망보다는 감사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불신양보다는 믿음의

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중에 그들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용량이 컸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큰 까닭에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용량을 넓혀야 합니다. 감정의 용량이란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용량이 작으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쉽게 감정이 요동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감정의 용량이 큰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용량이 크다는 것은 감성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

과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용량을 넓혀 가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처를 품고 진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용량을 넓히는 지혜는 어떤 사건이든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반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훈련은 믿음의 용량과 감정의 용량과 관계의 용량을 넓히는 데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제 자신이 속이 좁고, 그릇이 작은 것이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감사를 통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어느 중학생의 감사일기

한국의 장애인 사역 단체인 ‘가브리엘의 집’에는 중, 고등학교에서 퇴학 직전의 학생들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온다고 합니다. 학교로부터는 포기했다는 말을 붙이고 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죄명(?)은 이러했습니다. ‘악한 친구 괴롭히기, 상습 폭행하기, 상습 거짓말, 도벽, 협박.....’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가브리엘의 집’ 김정희 원장이 이 아이에게 감사일기를 쓰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브리엘의 집’에 온지 5일 후에 이런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 내가 5일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한 끝에 고정관념이 바뀐 것에 감사한다. \*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 주고, 정직하면 얼마나 큰 행복이 오는 지 깨달음에 감사한다. \* 내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남의 쓰레기가 내 쓰레기처럼 느끼게 된 것에 감사한다. \*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다. \* 지하철 안에서 자리가 없어 앉지 못하지만 손잡이가 있음에 감사한다. \*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고를 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한다. \*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담임선생님께 감사한다. \* 꿈과 희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 봉사 활동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다.

어떻습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생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힘입니다. 이 학생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이 더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포기했는데, ‘가브리엘의 집’에서 장애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고 느끼며 원장님의 사랑 어린 권면과 감사 일기 교육으로

단 며칠 만에 변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대화의 벽을 쌓고 살았던 아이가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 기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이런 속 깊은 감사 일기를 쓰게 되다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집’ 김정희 원장은 이런 일도 있다고 말합니다. “도벽이 심한 여자 중학생인데,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지요. 가정환경을 비하해 자살 시도도 수차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감사 일기책을 선물하면서 감사 제목을 다섯 가지 찾아서 적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음 날 무려 34개의 감사 제목을 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진심어린 표정으로 저를 대해 주셔서 저도 나름 진지하게 감사 제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감사 제목이 이렇게 많은 것에 저도 놀랐어요. 이 세상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과 함께 기쁨이 샘솟아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성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4)

##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3. 츠빙글리의 유산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  
이제 마지막으로 츠빙글리의 독특성과 그가 남긴 성경적

개혁신학의 유산을 살펴보자. 츠빙글리는 신학적인 요소들과 도시의 정치적인 요인들을 결합시켜서 지역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였다. 취리히의 교구 목회자로서 교회당 안에서 성직자 제복을 입고서 활동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위협을 감수하면서 지역화 된 공동체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데 까지 동참 하므로서 전혀 다른 종교개혁자의 모습을 남겼다. 성경의 교훈과 지역의 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개선을 모색하는 식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으로 크게 이바지 하였다.

가장 탁월한 츠빙글리 해석자로 널리 알려진 로허 (Gottfried W. Locher) 교수는, “츠빙글리언주의”라고 부르는 특별한 도시중심 개혁운동의 전형이 취리히, 제네바 등 스위스 여러 지역에서만 성취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그 전형은 먼저 세례와 성찬, 예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성경해석이 확연히 드러났고, 츠빙글리가 취리히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세속정부를 이끌어 나갔다는 점이다. 츠빙글리가 1518년 취리히에 신부로 추천을 받아서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마리그나노 전투(1515)에서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스위스에서는 로마 교회가 더욱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을 시기였다. 츠빙글리는 1513년부터 계속된 전쟁에서 로마 교황권이 프랑스 군대에 패배하게 된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519년부터 1531년 사이에 유럽의 종교개혁이 치열하게 전개된 당시에 스위스는 열 여섯 개의 지역별 세속정부 즉 자치주, 자치도시, 봉건적 지방분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법적으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황청의 감독 하에 있었다. 스위스 지역 칸톤들은 1499년 바젤평화조약을 맺고, 유럽의 정치를 좌우하던 제국의 명

령대로 따라가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조항들로부터 자유를 얻어냈다. 결국에는 스위스 동맹에 속한 지역들은 상호연합을 통해서 영토와 사람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군사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야만 되었다. 스위스 동맹체에서는 일관된 외교적 정책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못했었다.

츠빙글리와 취리히 세속정부가 종교개혁으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1520년 7월 15일부터 츠빙글리는 프란시스코파 설교자 프란츠 램버트와 성경해석과 설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로 취리히 시의회는 오직 성경에 합당한 설교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1521년 여름에 취리히는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파르마와 피아센자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 전쟁은 취리히가 마지막으로 용병을 파송한 것이다. 그러나 1522년 1월 11일에 더 이상은 결코 용병을 파송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피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추기경들을 “늑대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츠빙글리가 미사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면죄부를 공격하며, 성인들과 성상숭배를 철폐를 단행하고, 스폴라주의 신학을 비판하자 취리히 시민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제기된 교회 개혁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성경에 따라서만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에는 츠빙글리가 용병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세속정부는 용병파송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했었다.

츠빙글리의 성경적 설교사역이 진행되면서, 1522년 7월, 취리히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기로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회복한 츠빙글리는 개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한결 성숙해졌다. 여전히 교회와 성경 중에서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1523년 1월 29일, 취리히 시청에서는 양측의 공개토론이 개최되었다. 복잡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츠빙글리는 “67개 조항”을 작성 제출했는데, 성경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교황, 미사, 선행을 통한 구원, 성인들의

중보, 수도원 제도, 성직자의 독신주의, 고해성사, 연옥을 모두 반대 하였다. 1523년 10월에 츠빙글리의 신학과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취리히 시의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삼는 교회의 개혁을 성취하지 않았더라면, 각 지역마다 나눠 갖고 있었던 법적인 결정사항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국가적 통합 원칙들을 제정할 수 없었다. 각각의 칸톤들은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나가는 자치권을 행사하면서도, 주변의 도시들과 지역들에게 연대를 추구하고 있었다. 취리히의 결정은 콘스탄스, 울름, 프랑크푸르트, 아우구스부르크, 린다우, 뎀잉겐, 스트라스부르크, 베른, 바젤, 제네바 등으로 전파되어나갔다. 츠빙글리의 영향은 제네바에까지 전달되어서 1535년에 개혁신앙을 받아들였고, 칼빈의 개혁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터전을 제공하였다.

개혁교회 진영은 본질적으로 급속하게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네 개의 도시들을 (취리히, 바젤, 베른, 샤프하우젠) 중심으로 하는 칸톤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츠빙글리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껴 보수적인 로마 가톨릭에 가담한 다섯 개의 도시들인 농촌 지방들 (루체른, 슈비츠, 운터발덴, 추크, 우리, 프리부르크)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와 1529년 동맹을 맺었다. 슈비츠에서 츠빙글리파 설교자가 이단으로 처형된 사건 때문에, 1531년에 두 번째 카펠 전투가 벌어졌고, 취리히의 개신교 진영이 패배하자, 츠빙글리의 꿈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취리히와 브렘가르텐이 포함된 아르가우 지방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했다. 불링거와 다른 두 명의 목회자들도 역시 추방당했다. 다음 해가 되면서, 스위스는 츠빙글리를 지지하는 개혁주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에 지속적으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칸톤들이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츠빙글리가 출생한 생가 빌트하우스 ©김재성 박사

취리히를 포함하여, 종교개혁 진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도시들에서도, 교회의 주요 사항들은 모두 다 시정부, 귀족 정치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취리히에서는 츠빙글리의 제자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던 토마스 에라스투스가 제안한 바에 따라서, 교회의 출교권은 세속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받아들였다. 신앙고백서의 내용들, 목회자들의 활동사항, 교회의 권징, 교육, 교회재산의 관리 등 모든 결정들을 세속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 관내에 소관된 업무사항으로 다뤘다. 기독교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추진했지만, 깊은 충격을 받은 칸톤들에서는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교회의 독립성을 구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세속 정부와 지방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목회자의 자문사항을 용인할 것인가를 놓고서 거듭된 토론을 하였다. 취리히에서는 거의 사십 여년을 목회했던 불링거가 개인적인 설득력을 발휘해서 시정부에 자문하였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성직자 임명이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결정을 각 교회가 총회의 규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교회의 재량권에 속한 일이기에, 당연히 여기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취리히, 바젤, 샤프하우젠, 베른 등 개혁진영에 합류한 칸톤에서는 시정부와 교회 사이 심각한 대립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칼빈은 베른 시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번번이 반대하였다. 왜냐면 베른

시정부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권징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전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의 내용이라든가, 예배의 예전적 구성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했다. 제네바에서는 1540년부터 칼빈이 독립권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였기에, 그 주변에서 큰 도시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른 시당국과의 사이에 민감한 대립을 지속하였다. 1558년에 이르게 되면서, 스위스 개혁진영 내에서는 취리히와 제네바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츠빙글리의 서거 이후에, 취리히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은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상호신뢰하면서 놀라운 협력을 이뤄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개혁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 1549년에 불링거와 칼빈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발표한 “협화신조” (Consensus Tigurinus)야말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협력사역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독일 말부르크에서 모인 1529년의 회합 (Marburg Disputation)이 결렬된 이후에, 성만찬 신학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었다. 유럽 전 지역에서 츠빙글리와 스위스 개혁교회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군주들이 많지 않았고, 개신교 진영 사이에서도 신앙고백의 차이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칼빈은 루터파 신앙고백서와 츠빙글리의 입장차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상호 조율을 해서 조화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계속)



##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목회자료  
 목회일기  
 목회일기  
 목회일기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시간 시공당시 연하수면 안개도지 않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빠른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s를 드립니다.  
 Member Referral

회원사망 시 평균 회비의 100배 금액의 장례비 지원  
 Life Plan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캘리포니아 지역 CMM 설명회 안내**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 중인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금) LA와 Anaheim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바랍니다.  
**213-318-0020** (이사라)  
 hyenulee@christianmutual.org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혼자 사는 삶이 아닌, 홀로서기

# ‘하나님의 자녀’ 라는 존재감, 책임 다하는 삶 원동력



책임을 어떻게 삶을 성장시키는가  
쓰쓰미 구미코 | 전경아 역  
더블북 | 228쪽

“당신은 누구인가요?”  
“뭘 하고 싶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다.

단,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으면 안된다.

사르트르는 “자유롭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한다.

성장하는 삶 살려면, ‘책임지는 법’ 배워야 책임지지 않는 사람, 홀로서기 대신 ‘혼자’ 인생 모든 선택 결과, 타인 아닌 자신의 탓

삶은 홀로서기다. 홀로서기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이다.

홀로서기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삶이다. 자신을 뛰어넘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남을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홀로서기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홀로서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장이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낄 때다.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이는 많지만,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가 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혼자가 된다.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

쓰쓰미 구미코의 책 『책임을 어떻게 삶을 성장시키는가』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사상을 빌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접하기 생소한 철학자일 수 있다.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의 저자 안광복은 그 이유를 ‘사르트르를 너무 학술적인 면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르트르에 대해 ‘세상에 치여 움츠러든 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철학자’라고 평한다.

『책임을 어떻게 삶을 성장시키는가』는 사르트르의 사상을 책임과 성장이라는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다. 책은 각자 삶의 문제를 가진 7명의 등장인물이 사르트르라는 스승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자 쓰쓰미 구미코는 사르트르의 입을 빌려 ‘인생의 모든 선택의 결과는 타인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고 설명한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이상,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정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라는 이유로 정하는 것은 주변에 책임을 미루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전적으로 부모님 탓이나 세상의 탓이라고 화살을 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입니다.”

하나님, ‘혼자 살기’ 아닌 ‘홀로서기’ 원해서  
책임의 무게, 아담과 하와 이후 ‘죄’ 결과로 ‘Do(노력)’와 ‘Have(결과)’ 보다, ‘Be(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되는 삶이 아니라 홀로서기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홀로 설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셨다. 책임의 무게는 무거웠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어쩌면 사람들이 책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책임과 하나님이 말하는 책임은 다르다.

세상의 책임은 정죄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람에게 그 원인을 묻고 결과를 혼자 감당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은 ‘정죄’가 아닌 ‘지켜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책임의 무게를 통해, 우리는 성장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저자는 “Do(노력)와 ‘Have(결과)’ 보다, ‘Be(존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한다.

“Be는 ‘존재’, ‘존재방식(있는 상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Do는 ‘행동’, ‘의지력’,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Have는 ‘성과’, ‘상황’, ‘환경’, ‘갖는다’, ‘만든다’는 뜻이죠. 인생은 늘 ‘Be’, ‘Do’, ‘Have’의 순서로 경과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사과 열매를 얻고 싶다면,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가? 사과 씨를 뿌려야

한다. 사과 씨가 ‘존재’이다. 나의 ‘노력’과 ‘결과’는 항상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책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하나님 자녀인 우리, 책임지실 것 그리스도인, 존재 날마다 확인해야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는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도구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택할 때가 많다. 그런데도,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이 아닌 정죄하는 대상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한들 눈치 보며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저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앞으로 던지는 ‘투기(投企)’를 하라고 말한다. ‘투기는’ 말 그대로 ‘계획을 앞으로 던진다’는 뜻이다.

“매 순간 투기를 합니다. ‘어떤 날로 사는 게 좋은가?’ 매일 아침 생각나는 말로 나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정하는 거죠.

가령 아주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으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투기합니다. 그러면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별처럼 희망으로 빛나는 나’로 투기했죠. 그러면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울적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랑스러운 나’를 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에 애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투기”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 2020년 축복가득 말씀카드

###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2020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이있는 말씀카드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예전과 동일한 끈이 없는 인덱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NEW 20종류의 바탕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VENT**  
20% OFF  
선 주문 할인 혜택

11월 27일 까지  
주문고객 !!

150개 \$175 \$140  
300개 \$275 \$220  
500개 \$425 \$340

전화 및 온라인 주문 환영

주님미디어에서는 그 외에도

말씀타올, 머그컵 및 텀블러, 설교CD, 임직패,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23.265.0244

다양한 샘플이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미주성결교회 총회 창립 40주년 기념

# 하와이 평신도연합 성결인대회

문의 +1 808 295 2630

# 시경의 능력

주행 성결 신우 재림

(수 3:5)

오후 2시 | 오후 7시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7시 ~ 24일(주일)

## 저녁집회

22일(금) 23일(토) 24일(일) 저녁 7시 하와이 우리교회  
Hawaii Ohana Evangelical Church (담임 봉영찬 목사)  
2065 S.King St. #206 Honolulu, Hawaii 96826

## 낮 집회

23일(토), 24일(일) 오후 2시 갈보리교회  
Hawaii Calvary Evangelicals Church (담임 제키 카오후 목사)  
1814 Algaroba St. Honolulu, HI 96826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용배 목사



평신도부장  
제키 카오후 목사



LA동지방회장  
봉영찬 목사



갈보리교회 원로목사  
임병철 목사

## 강사 백송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주관 미주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후원 한국성결신문사, 기독교일보(미주)

\*백송교회 집회 일정안내

## 영적대각성 부흥회

12차 11/11(월)-11/14(목) 보령 백송수양관  
13차 12/9(월)-12/12(목) 보령 백송수양관

## 성령 컨퍼런스

69차 12/16(월)-12/20(금) 보령 백송수양관

문의 032)323-1291(교회) / 041)931-0195(수양관)

